

發明할 것이 너무 많다

정확히 말해서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착 지나서 (미국동부표준시간) 모처럼 아름다운 도시 Sanfrancisco에서 열리는 온 미국인의 관심사인 그곳 켈스틱파크 야구장에서 홈팀인 Sanfrancisco의 자이언트와 오클랜드의 어틀레틱스팀간의 프로야구 World Series 제3차전이 시작되기 30분전의 생방송을 ABC TV방송국을 통해서 보는 순간이었다. 이날 筆者가 그 눈코 뜰새없는 美國移民生活에 특별히 집에 있을 理由가 있었다. 늘 고생하던 풍치(Gum)를 어느 치과의사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통스러운 수술을 마치고 낮시간부터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증과 싸우는 순간이기도 하기에 더욱 Sports 중계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시나 통증을 잊어버리거나 하려고.

이때였다. ABC TV방송의 낮익은 지성미의 Ted씨의 기계고장으로 중계가 지연된다는 몇마디와 더불어 정규프로가 방영되고 있는가 하다가 갑자기 Ted씨가 다시 나타나 착 가라앉은 침통한 목소리로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지만 Sanfrancisco에 강지진(Earthquake)이 나서 전기가 나갔고 약간의 희생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어느덧 잇몸수술의 지독한 통증은 의식을 못한채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집과 고층건물이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같이 생매장되고 불이 나서 도시가 잿더미 되는 현상이 영화의 한장면처럼 스크린을 지나갔다.

이어서 어떻게 그리도 빨리 入手했는지 베이다리라는 우리 서울의 잠수교와 같은 2층형의 다리의 상층간구간이 완전히 하층으로 가라앉았고 차가 2대 매달려 있었으며 또한 880번 2층 고속도로도 역시 상층 1km정도가 완전히 하층으로 가라앉은 모습과 더불어 때마침 퇴근길의 Rush hour에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의 곤두박질 그리고 정전된 압축의 도시에 하늘을 치솟는 불길 이 시내의 주민조밀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어서 美史上 1906年度の 진도 8.3에 이어 이번 지진이 진도 6.9의 강지진으로 더구나 45초동안 계속되어 약 30~40명의 사망자를 냈을 것이라는 추측보도와 더불어 현지의 사정들이 TV화면에 계속 비춰지기 시작했다. 약 6만6천명의 야구팬들이 대회장의 경기연기소식이 확정기로 퍼지기 전에 벌써 아이들과 여자들이 남자들의 손에 이끌리어 질서정연하게 야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옛날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이지만 서울운동장의 압사사건, 서울역의 압사사건등 많은 군중이 모였을때 질서를 잃어 버렸던 우리들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미국의 최대 TV방송국이긴 하지만 아나운



陳 今 燮

〈在美 韓國辨理士·藥學博士〉

서 Ted씨의 전연 흔들림이 없는 침착하고 정확한 보도는 현지의 Reporter들의 당황한 보고와는 달리 미국인의 전문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역시 대견스럽게 보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Ted씨는 아마도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 벌써 되었음도 했을텐데 이 지진상황을 새벽1시까지 무려 8시간을 흐트러짐이없이 생방송에 전념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볼때 기쁜자와 같이 웃고 슬픈자와 같이 우는 이들의 전문화되고 실제생활에 철학이 깃들여 있는 삶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화재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파이프에 불이 붙었기때문에 불길의 하늘을 치솟으며 오직 더번지지 못하게 할뿐 모르는 끝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해설과 더불어 소방차들의 안간힘과 양동으로 한줌의 물이라도 퍼붓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어두어진 밤하늘에 화염은 더욱 치솟고 검은 구름은 하늘을 까맣게 물들이고 있었다. 계속되는 보도속에 특히 오래된 건물은 대부분 무너졌고 이속에서 사상자가 많이 있었기에 훗날통계지만 약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

고 1000여명의 부상자와 약 3billion ex US\$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사건앞에 서있으면서 다시한번 엄숙히 그리고 겸손히 대조물주 하나님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줄안다. Mayflower의 배를 타고 첫 이민 온 청교들의 신성하고 거룩하기까지한 삶의 자세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미국이 오늘날 그 개척정신을 자꾸만 쇠퇴해가고 마약의 소굴처럼, 술주정뱅이의 온상처럼, 그리고 섹스의 전당처럼 풍요속에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게으름과 향락이 점차 판을 칠려고하는 이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조물주 하나님의 재앙에 의한 경고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해 본다.

종종 조국 한국을 방문할때마다 세계에서 굴지의 교회와 성당들이 준비하고 대사찰들이 도처에 중건되는 한국서울의 중심지인 영동이 밤만되면 발을 들여 놓을수없는 심지어 여자들 전용인 남자종업원빠까지 있는 환락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때 그옛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만을 열심히 하던 우리조상들의 근면성이 쇠퇴해만 가는것을 보며(지난 추석의

2천만 민족이동이란 일주간 일않고 노는 것을 볼때도 더욱 그랬지만) Sanfrancisco의 대지진이 물건너 불구경이 아닐줄 알아야 하지않겠는가?

한편 특허전문인(?)으로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러한 지진을 먼저 탐지하는 장치와 기계는 지금껏 발명하지 않았던가? Gas의 근원에 불이 붙었을때 곧장 불끄는 소방차와 소방시설이 지금껏 발명되지 않았던가? 얼마전 California洲(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곳)에서 이사는 K교포의 발명품인 사전지진탐지기가 특허되어 쓰여졌다면 어떨가도 생각해 보지만 위에서 말한 2가지 것에 대한 많은 발명품이 특허되고 개발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 신통한 발명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발명자들이여! 곧 갑부가 되는 발명할 것도 많지만 돈도벌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는 지진사전탐지기와 Gas화재 방지기를 속히 발명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위싱턴 BSKB특허법률사무소)

案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移轉

內

우리協會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가 發明獎勵館의 移轉과 함께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 別館 2층 發明獎勵館內로 移轉 되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